

#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어디에 있는가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인 《코리아 클라이밍 트레이닝》(《조선반도비행훈련》)을 벌여놓았다.

이번 공중전연습에는 남조선호전광들이 《대북선제타격》을 위한 핵심자산이라고 떠드는 스텔스전투기 《F-35A》와 주일미군소속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비롯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군용기들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유사시 남조선군과 미군의 특수부대를 공화국의 주요대상물에 침투시키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참수작전》용수송기까지 동원시켰다.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전쟁 위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는 위협천만만 군사적당면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 남조선호전광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일대에서 외세의 야합으로 벌리는 북침전연습들의 명칭이 여러번 바뀌고 그 규모와 형식도 각이했지만 도발적, 침략적성격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되었다.

사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벌리는 전쟁연습에 《방어적》이라는 외피를 씌워 여론을 오도하면서 저들의 대결적, 침략적용성을 합리화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유사시 공화국의 주요지점 수백개를 동시에 타격하기 위한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대해서도 남조선호전세력은 그 누구의 《도발적》을 위한것이라고 떠들었다.

그야말로 뻔뻔스러움과 과염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도대체 동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전쟁불장난이 어떻게 《방어》를 위한것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과 벌리는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을 비롯한 전쟁소동은 날로 무섭게 장성하는 공화국의 절대적힘과 군사적강세에 절절한 자들의 단말마지광중이며 조선반도의 군사적불안정과 전쟁위험을 더욱 야기시키는 엄청난 도발망동이다.

부연하건대 조선반도의 평화 파괴주범, 근원은 침략적인 외세와 그의 전쟁돌격대, 사환군이 된 남조선호전세력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반미, 반전, 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정 필



## 악몽과도 같은 과거를 부활시키려 한다

망둥이가 튀니 꼴뚜기도 편다는 속담이 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권력을 잡게 되자 우익보수세력들이 덩달아 날뛰는것이 그러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자유총련맹》, 《재향군인회》, 《염마부대》, 《신자유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은 박근혜의 탄핵과 더불어 적폐청산대상이 되어 지금까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구석구석에 처박혀있었다.

그러던자들이 윤석열이 당선되기 바쁘게 어둠속의 바퀴벌레처럼 꾸역꾸역 밀려나와 제 세상이 왔다고 활개

치고있다.

얼마전에도 《재향군인회》것들은 《지난 시기처럼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만을 생각하겠다.》고 떠들면서 반공화국집회들을 광란적으로 벌리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연대》를 비롯한 다른 보수단체들도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 나서고있다.

지어 인간버려지에 불과한 공화국베라살로를 비롯한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미처날뛰고 있다.

윤석열패당이 《국방백서》에 《북정권과 북인민군을 적으로 명기하겠다.》느니, 《북에 대한 선제타격》이니 하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니 극우보수세력들도 그에 맞장구를 치며 반공화국대결에 퍼는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이이다.

한편 극우보수세력들은 서울주재 일본대사관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반일시위를 벌여오던 진보단체들을 밀어내고 친일 집회를 벌여놓는가 하면 생존권을 위한 민주로총의 투쟁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걸여 고발하는 등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

화를 요구하는 진보단체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맞서면서 못되게 놀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윤석열패당의 집권으로 하여 남조선사회가 사대대국과 동족대결, 파쇼통치를 생리로 하는 보수세력들이 살판친 악몽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유신》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린 초불을 이제 《정의》, 《공정》으로 둔갑한 윤석열패당을 파멸시킬 거센 해볼로 지퍼울리겠다는것이 남조선인민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전 명진

최근 남조선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보편화되고있는 외래어용의 심각성을 밝힌 《불필요한 영어자막사용 실태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남조선의 라디오와 TV 등에 넘쳐나는 무분별한 외래어사용을 방송언어의 가장 큰 문제로 되고있다. 로인세대는 보도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소외되고 세대간 의사소통단절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언어습관을 주입시키는 역기능을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비정상적이고 기막힌 현실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보고서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해서라도 지난해 상반기 대중보도수단들의 방송프로그램 외래어사용률은 평균 68.2회로서 2019년에 비해 20회나 늘어났다고 한다.

그로 하여 인터넷사용과 외국어에 취약한 로인층은 아예 방송시청에서 《외계인》으로 밀려나고있으며 청

소년층은 방송의 외래어자막을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인터넷에 옮기거나 실생활에 활용, 확산시킨다고 한다.

영어자막사용회수가 늘어나고 학생들이 이에 익숙되다 보니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는 교원이 학생들에게 《리치》이라고 칭찬하였는데 학

다우기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TV나 라디오에 출연하여 《서프라이즈 파티》, 《이벤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글로벌중추국가》, 《매타버스》(매일 타는 버스), 《개깃》(개혁의 깃),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갓갓갓》(갓지만 잘 싸웠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와 같은 외래어, 잠랑말을 쓰는것을 《유식》으로 뽐내고있으니 사말들이,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무엇을 따라 배워왔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이 《시대변화》를 운운하며 허울뿐인 《평화헌법》마저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제침의 길에 합법적으로 뛰어들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상 기시다가 앞장에서 헌법개정을 집권기간 무조건 실현하겠다고 떠들고 정계에서도 헌법헌법은 75년전에 만든것이기때문에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재산상을 지킬수 없다고 떠들면서 헌법개정에 적극 나서고있다.

## 남조선에서 사멸되고있는 민족어

생들은 《easy》(쉬운, 수월한)로 잘못 알아듣고 《우리가 위위보이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회비극도 벌어졌다고 한다.

외래어의 람용만이 아니라 우리 말과 외래어가 뒤섞인 잠랑말들도 대중보도수단에서 거리낌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필요한 영어자막사용 실태보고서》는 우리 말과 영어단어의 혼용회기는 2020년에 361건,

2021년 상반기에는 270건이나 되었으며 영어를 우리 말 발음으로 표기한것도 2020년에는 1 777건, 2021년 상반기 1 31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중보도수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인 《비주어》(눈에 보이는), 《오른》(열다), 《라임》(때, 시간) 등은 일상언어로 고정되는 등 외래어사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언론들의 명칭자체가 《시사저널》, 《체널S》, 《연합뉴스》 등 외래어로 되었거나 우리 말과 외래어의 혼합으로 되어있으니 그들의 보도에서 외래어와 잠랑말이 차고넘치는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본사기자 김정혁

## 자멸을 재촉하는 헌법개정

일본이 《시대변화》를 운운하며 허울뿐인 《평화헌법》마저 파기하고 전쟁헌법을 조작하여 제침의 길에 합법적으로 뛰어들려 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수상 기시다가 앞장에서 헌법개정을 집권기간 무조건 실현하겠다고 떠들고 정계에서도 헌법헌법은 75년전에 만든것이기때문에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재산상을 지킬수 없다고 떠들면서 헌법개정에 적극 나서고있다.

《평화》의 허울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제침의 길로 나가려는 심나라것들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망둥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것은 왜나라쪽말들이 변함없는 야망이며 전략적 목표이다. 일제가 패망한 후부터 지금까지 심나라것들은 패전의 수치를 당한 양심을 하겠다고 독이발을 갈며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범위를 음모로 넓히는 한편 일본을 전

## 더욱더 격렬해지는 반윤석열투쟁

남조선인민들의 반윤석열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5월 7일 서울 용산일대에서 《초불승리! 진평행동》과 《대통령집무실이진년대공동행동》의 회원들이 윤석열의 사부실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불통민체 윤석열 규탄한다》 등이 적힌 패말을 들고 《불통민체 윤석열》, 《고집불통 윤석열》, 《통산으로 오지 마라.》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벌리었다.

한편 이날 민주로총 화물련대분부는 서울의 여의도 공원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소수대란과 기름값폭등 등으로 일할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현실에 안전운임마저 존폐위기에 섰다.》, 《오늘 투쟁으로 국회와 정부에 마지막고고를 보내고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시위를 벌리었다.

민주로총 공공운수로조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린근에서 로동기본련확대 등을 촉구하는 집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로조 위원장은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